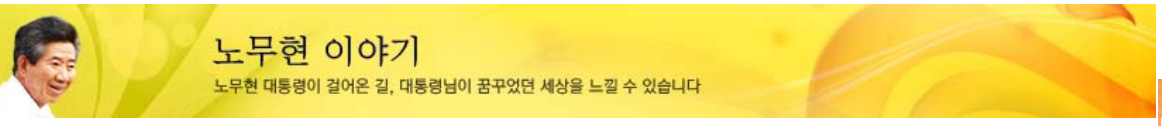

말과 글

글을 올려놓고 보니

조회수 : 61593
등록일 : 2009.02.22 21:06

퇴임 1주년 인사를 겸해서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항상 저의 글을 올리던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마당은 저도 관리자의 도움이 없이는 글을 올릴 수 없는 곳이라 이곳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글을 올려놓고 보니 우리 자유 게시판이 참 초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관리 부실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자의 역량도 권한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회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회원님들의 글에 마구 간섭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어라고 꼭 꼬집어 이야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느끼는 즐거움, 보람 이런 것이겠지요. 유익하다 싶은 소식과 정보, 자료, 고개가 끄덕여지는 논리, 흐뭇한 느낌을 주는 이야기, 기분 좋은 웃음을 자아내는 유머와 위트, 이런 것이 사람을 끄는 글이겠지요.

민주주의 2.0을 기획할 때 '대중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중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발산'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발산이 '정제되지 않은 감정의 발산'이 막말이나 욕설로까지 발전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의 공간, 발산의 공간은 필요할 것입니다만, 어떤 공간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넘어서는 자유를 용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와 비판은 사물을 명료하고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와 비판일수록 공격이 아니라 상대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차분하고 겸손한 설득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거나 감정싸움에 매몰되면 결국은 사람관계 마저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중재를 하는 사람, 재판을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함께 뒤엉킵니다. 자연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이 사이트에서의 논쟁과 서프라이즈에서의 논쟁을 비교해보면 서프라이즈가 좀 더 세련되고 정제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유일 것입니다. 야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실도 논리도 없는 모욕적인 욕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이트에서는 특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도 감정을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한 논리로 대응하거나 그렇게 할 수준이 아니면 무대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좀 부린다면, 일상적으로 떠오르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판단과 행동에 도움이 되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사실과 논리들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의견만이 아니라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붙여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주권시민이 되는 학습이 있다면 아마 첫 관문이 이것일 것입니다.

그 동안 사이트 운영을 부실하게 한 점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재미도 있고 유익한 기능을 하는 사이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개편 작업은 느리기는 하지만 진행 중입니다. 민주주의 2.0은 이 사이트 개편이 끝난 후에 문을 닫거나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이라도 이 사이트의 분위기를 좀 바꾸어보면 좋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09.2.22
노무현

출력하기

촌평 **237**개

차칸늑대 2009.02.22 21:08

*^_____^*

여부 있겠습니까???

내마음 2009.02.22 21:08

헉?> 또 오셨다 ㅎㅎㅎ

미국농꾼 2009.02.22 21:09

민주주의 2.0을 기획할 때 '대중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중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발산'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발산이 '정제되지 않은 감정의 발산'이 막말이나 욕설로까지 발전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의 공간, 발산의 공간은 필요할 것입니다만, 어떤 공간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넘어서는 자유를 용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감합니다.

하늘**an**바람 2009.02.22 21:10

헉~~오늘 꿈인지 생신지~~

얼음공주 2009.02.22 21:10

*^_____^*

너무나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사는세상 게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칸**(khan)** 2009.02.22 21:11

노짱님.....
토론과 협의 부재의 시대 ...
그러나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 온 저희들에게 민주주의 2.0은 실험적 무대입니다. 작은 욕설로 시작해서 거대한 담론까지....
아직 협상-협의 부재 시대를 살아온 저희가 배워가야하고 익혀서 넘어서야 할 커다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과 토론 이 익숙해지고 습관화 되어지겠지요.

digna 2009.02.22 21:11

저희 글에 마구마구 간섭 해주세요 ^^*
노짱님의 홈피 입니다.
여기서 만이라도 노짱님의 의견과 견해를 거침없이 올려 주십시오

도원경 2009.02.22 21:11

죄송합니다

shWkd 2009.02.22 21:13

많이 찔립니다...저 또한 무지막지하게 화가 나면 욕설을 했었는데...돌아서면 후회하면서도 하도 꼴통 글을 올리는 사람들땜에 분에 못이겨 욕설을 했는데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된거죠...

노짱님의 글 명심하고 앞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적이고 설득력있는 논리로 글을 쓰도록하겠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글을 읽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호미든 2009.02.22 21:15

무슨 답이든 해야될 것 같은데
마땅히 떠오르는 생각과 말이 없습니다 ㅜ.ㅜ
부족합니다만 사람세상의 노하우인들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여기 회원들은 모두다 사람사는 세상에 공을 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더 '더욱 더' 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님 편안한 휴일 밤 되시길...

독신일중 2009.02.22 21:16

안녕 하세요. 오랫만에 들려 봅니다. 사실 댓글 조차 달지 않고 유령 회원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상주? 하는 사이트는 KBS 1Radio 콩게시판 입니다. 제가 막노동 하는 詩人 이라, 매일 매일 참여는 힘들지만, 1 Radio 의 열릴토론 프로그램에선 거의 매일 근 4년동안 참여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가 뭔지도 몰랐고 경제가 뭔지도 잘 몰랐으나. 4년 동안 매일 청취를 하니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볼수 있게 되었지요. 詩人 이라지만, 아직 출판된 詩集 한권 없으니. KBS 1R 에 상주 하는 보수단체 회원? 들이 솔직히 무시 하지만. 제가 아는 만큼 글을 올리고 비판 하고 대화를 요구 하고 합의를 요구 합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이 나라의 수구 보수 기득권의 태도는 내 쓸데 없는 감정까지 끌어 내고 마치 사이코가 되 가는 것 같은 나를 보게 됩니다. 암튼, 그곳에서 벌어지는 전투? 혹은 사회적 참여를 하는 진보적 가치의 사람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참여가 없으면, 방송을 통한 그들의 기득권은 점점 커질 뿐이니까요. 부탁 드립니다.

이륙이 2009.02.22 21:16

지금 어렵지만, 님의 당당한 모습을 생각하며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곤란을 희롱하겠습니다.

지금/여기 2009.02.22 21:17

어이쿵~ 왜 이렇게 가슴 뛰게 하십니까~~~ 대통령님...
너무 너무 너무 좋아서 어쩔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니터링 담당 시간이라 게시판을 실시간으로 노려(?)보고 있는데...
떨려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참여사진관에 님 그리워 사진 올렸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진 함께 보아주세용~^^

북두 2009.02.22 21:18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실과 사실에 근거한 논리,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솔직한 감정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을 보는 다른분들을 위하기 이전에 그 글을 쓰는 제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사고를 하고 그 사고를 정리하여 이곳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흙마당 2009.02.22 21:19

잘 알겠습니다.
긴장하겠습니다.

산소맨 2009.02.22 21:20

소중한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무현동상 2009.02.22 21:21

그저 추천만....,
다만, 이곳이 노무현대통령님의개인 홈피이고 보면
많은 무례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깨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넘 부족함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지하고 쫓겠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님께 뛰움니다.

digna 2009.02.22 21:21

노짱님 말씀을 받들어서 앞으로는 글을 올릴 때 좀 더 신중하고
근거있는 여러 시각의 자료를 기본으로 보편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가르침 주셔서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을 때는 칭찬으로 잘못 했을 때는 주저없으신 꾸짖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붕어마니 2009.02.22 21:21

네~
늘 지켜봐 주시는 군요~
갑자기 부처님 손바닥의 손오공 생각이 납니다~^^

미국농꾼 2009.02.22 21:21

말같지 않은 댓글, 욕설, 비방글...이런 것들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네티즌들에게는 '무관심'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들이 보상을 받는 것은 상대방이 얼마나 약이 오르고 욕설을 퍼붓는가에

마치 '사디스트'같은 쾌락을 만끽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욕설을 욕설로 대응하는 것은 '마조키스트'의 쾌락?

집안에 성한 그릇과 가구가 하나도 없다시피 밤낮으로 부부싸움을 하는 집구석도 있습니다. 사디스트와 마조키스트의 앙상불이라고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맞고요...우리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토론'하는 민주주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여서...라고 변명아닌 구실을 찾아봅니다.

이 참게판이 그래도 유일한 현장학습의 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제 오늘 곰곰히 '절필'을 생각도 해 봤습니다.

나의 건강에 '노란불'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자판을 두들겨 글을 올리게 만드네요, 노짱님 땜시로...

노짱님졸개 2009.02.22 21:21

대통령님.
세심한곳까지 신경써주시고 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묵은김치 2009.02.22 21:22

대통령님의말씀에 공감합니다
회원님들 모든분들을 감싸 안으시고 달래주시는글
공감합니다 더욱 성숙된마음으로 숙지하겠읍니다
좋은글 앞으로더 볼수있게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digna 2009.02.22 21:24

미국농꾼님
먼길 잘 다녀오셨어요?
가족분들을 만나시니 무척 반가우셨죠?

청갈매기 2009.02.22 21:25

대통령님의 배려가 한없이 가슴속 깊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찾아 뵈었을적에 고민하시고 직접 간여 하시면서 설명 해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좀 더 나은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서언이 2009.02.22 21:25

울 어머니(82세) 어제 봉하가서 봉하빵 사왔더랬어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노짱님!

디스크 혹은 퇴행성간절염은 054-276-0230로 연락해 보셔요.
수술 없이도 가능할 수 있으니 속는 셈치고 연락 한번 해보셔요.

나름노사모 2009.02.22 21:27

대통령님~!
오늘 밤 이게 웬 횡재란 말일입니까?
꿈인지 생신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글만 올리시고 바로 가시지는 않으시겠죠?
댓글도 보실거라고 여기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무쏘궁댕이 2009.02.22 21:30

앞으로 대통령님의 말씀 항상 되뇌이며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또한 대통령님의 지적 사항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였기에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통령님의 위와 같은 가르침을 받고자 오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꼭 대통령님이 아니시더라도 논리와 절제를 가지고 글을 써 주시는 분을 보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 분란이 없을수는 없겠지만,앞으로는 대통령님께서 주문하신대로
차츰 발전해 갈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항상 건강하신 모습으로 저희곁에 머물러 주십시요..^^
몸이 아프셔서도 안됩니다..^^
저도 항상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에게 기준점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둘리엄마 2009.02.22 21:31

저같은 눈팅은 더더욱 부끄럽습니다.
얕은 지식으로 눈팅도 참여랍시고 버텼는데..

게시판에 올라오는글들을 좀더 합리적인사고로 판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을담은하늘 2009.02.22 21:32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山中나그네 2009.02.22 21:32

죄송합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에 우리모두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좀더 진실되고 절제된 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이 2009.02.22 21:34

공감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좋은글과 말로 그 다름을 이야기 했으면 합니다.

소박한 들꽃 2009.02.22 21:34

노대통령님을 그려보면 늘 책과함께 지혜를..
따뜻한 웃음과 배려를 배우면서 생활에서 염두에 두고 지내니까
도움이 잔잔하게 됩니다.

한잔해 2009.02.22 21:35

모든 글들을 충분한 자료와 논리로 쓸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그글의 내용을 파악할수 있는 글이면될것갔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겨우 얼마나 되셨다고 벌써 허리가 아프십니까?
주치의는 도데체 뭘 하고 있습니까?
님은 우리시대 최고의 영웅이시라는 것, 님의 몸은 이미 자신만의 몸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주시고, 제발 옥체 보전하십시요

칼의 노래 2009.02.22 21:36

민주주의 2.0이 아직 시험적인 운영이니 문 닫기보단 새롭게 열어지길 기대합니다. 저와 같이 아는 것이 부족한 어지간한 사람들은 사실 다가서는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토론에 익숙하지 않아 감정 발산에만 치중하였다고 보입니다.

뒤돌아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봉하가는길**1** 2009.02.22 21:36

대통령님의 말씀에 공감 하면서도~

한편으론 착잡한 마음 지울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글을보면서 자유롭지 못

한다는 느낌을 받는건~~~~~ 하루빨리 뵙고 싶습니다~

냄비뚜껑 2009.02.22 21:36

좀 요약하자면 반대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우소로 보내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며 논리적으로 왜 그러한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에 임하라는 말씀인 듯..

dooki 2009.02.22 21:38

슬슬 기지개를 켜 봅니다.

물과 대지 2009.02.22 21:42

대통령님!
때가 아니다니요.
지금처럼 국민이 힘들때에 대통령님께서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과 소통하면
자연스럽게 저들의 용렬함이 비교되는것아닐까요?

이 참혹한 현실에 대통령님 침묵을 깨십시요.
국민들이 희망을 이야기 할수 있도록 살펴 주십시요.

대어조사 2009.02.22 21:49

訂察하여주신 좌표로 발포준비 하겠씁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하명으로 받들 겠씁니다.
허리 완쾌 신경쓰세요.

토르(블루핑크) 2009.02.22 21:49

노공이산님...
공부라는게 꼭 책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공이산님의 삶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데...
첫번째는 학습에 게으름을 피우고 두번째도 게으름을 피우고 세번째도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공님의 철학을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내가 잘 하고 있는걸까?" 매일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요...

노공님 말씀에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바탕으로 좀 더 괜찮은 사람사는세상 회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을 반성해봅니다.

일주년을 며칠 앞두고 마주하는 글이라 그런지 개인적으로 참 의미있고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한편 아프기도 하구요...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꾸준히 님의 삶을 본받고 제 삶 속에서
그 철학을 실천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뚱뚱이 2009.02.22 21:51

노짱님을 본받아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제게 로또 1등 당첨보다 더 기쁜날입니다.
저에게 외국생활 중에서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퇴임전에도 퇴임후에도 훌륭한 대통령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판단과 선택은 역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살앙합니다~ 0(^.^)0

장군차 2009.02.22 21:51

노짱님! 반갑습니다!
사람사는세상에 중심이 되어 이끌어주시고 질책하여 주세요^^

포터 2009.02.22 21:51

대통령님과
염화시중의 미소를 띠며 대화할 수 있는 곳..

그 때 그 때의 이슈를 풀어헤치는
시의적절한 글과 기사,
그리고 노무현이즘에 부합하는 학습자료가 넘쳐나는 곳..

'사람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열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곳..

그런 곳을 만들어가는데
저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

산바다강 2009.02.22 21:55

사람사는세상이 깨끗한 마당(건전한 인터넷 대화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존경합니다..

노짱사랑 2009.02.22 21:57

노통님,,,오늘 두번씩이나^^

우선 이곳 게시판은 서프에 비하면
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한 점수제도등 여러면에서 서프의 노하우를 이곳에
접목하는것도 충분히 시도해볼 필요가 있구요,,

또한 무엇보다도 참여의 확대를 넓히려면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복작되야할것입니다..

참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언론의 힘이 너무 미약한 관계로
언론이 아니더라도 제대로된 게시판이 하나 있다면
그깟 언론사가 대수이겠습니까???

이곳 사사세에 정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여 나중에는 바른정치에도 관심을 차츰 가질수있는
참여촉진형의 커뮤니티싸이트가 되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현재 사사세의 랭키순의가 처음 약 190위권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500위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여론기능을 하기위해서는
최소 50위안에는 들어가는 외형과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싸이트로 키워나가야할것입니다.

내맘속의 영원한 대통령님,,,
편안하고, 국민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따뜻한
휴일저녁되세요^^*

정도행보 2009.02.22 21:57

글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노공이산" 이란 좋은 이름 만들어 놓으시고
글 올리시거나 댓글 다실때 왜 안쓰시는지요?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시는건지요?
갑자기 쌩뚱맞게 궁금해 집니다.
편안하신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꾸벅)

공수특전단 2009.02.22 22:00

눈팅만하다가 노짱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로그인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항상 건강하십시요
저에게는 오늘부터가 봄입니다 고맙습니다

pegasus 2009.02.22 22:02

대통령님
우려와 질타를 겸한 애정의 글 감사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허나 저희들도 믿어 주세요..
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바보이겠습니까
님에게 누가 되는 말짓. 몸짓은 삼가 하겠습니다
여사님함께 두분 내내 건강하세요

노짱사랑 2009.02.22 22:07

덧붙여 말씀올리면,,,,

사사세를 확장하시고
민주주의2.0은 사사세 아래에 서브분류로 묶어두심이
접속시 분산및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2.0을 살리는 길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사사세 아래 서브분류로 정치일반,정치토론(민주주의2.0),역사관련,경제(주식포함),요리,음악,컴퓨터,게임,스포츠등 다양한 사람들이 편하게
참여할수있는길을 열어두심이 좋을듯하며 각 서브분류의 활성화방안은
타싸이트의 모범사례등을 벤치마킹하여 시도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언론의 순기능을 믿을수가없으니
이렇게 대통령님께 넋두리를 하게되네요,,,

좋은밤 되소소,,,,

笑而不答 2009.02.22 22:09

네..... 철푸덕 *^_____^*

오늘은청춘 2009.02.22 22:11

대통령님의 말씀 항상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고운(산) 2009.02.22 22:12

에구, 저처럼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라구요 ㅠ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감동입니다!

당공 2009.02.22 22:12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눈물이 납니다.
강건하세요. (멀리 마이애미에서)

sumi51 2009.02.22 22:14

완전 복터졌읍니다.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대강 알아듣겠습니다. 행복합니다.

더불어함께 2009.02.22 22:15

우리시대 진정한 스승=노짱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런 모습을 닮아가도록 항상 자신을 수양하겠습니다.

달맞이꽃 2009.02.22 22:17

대통령님,,정말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미국농꾼 2009.02.22 22:18

글을 올리는 것 다 좋습니다...그런데, 심사숙고하고...또 역지사지...상대방 생각도 좀하고...그리고 우리 '노짱'님도 들여 보신다 생각하면,

막말을 함부로 뱉어 내진 못할 것 같은디...

철부지 인간인지라...애궁...언제 철이 들까요? 아마도 공동묘지 가는 날?

아마도 이 '참게판'이 많이 정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채찍보다 더 아픕니다. 나 자신을 뒤돌아 보게 하십니다.

마당 2009.02.22 22:19

노짱님 말씀처럼 해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빨간야옹이 2009.02.22 22:23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한번쯤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 노사모였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이곳에 들어오면
댓글 중 좀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왼손에 파든 사람 (좌파)" 측에 속하는 저도
어떨땐 좀 찌푸려지기도 하더군요. 좀 나은 사람들이
더 크게 안아줍시다. 넓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
(무례하게 한 번 제안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봄햇살 2009.02.22 22:24

헉, 두 번씩이나 놀래게 하시네요.
근데,지금이 더 떨리네요.
정말 떨려서 글이 안 써지네요.^^
앞으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소중한 공간,좀 더 성숙한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들 몫이겠죠.

정말 멋진 대통령님 이십니다!

나눔세상 2009.02.22 22:31

가입인사 그동안 망설이다가 오늘 비로소 가입 ...^^

늘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정신이 발산 이것이 정답아닌가 합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두분다 건강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

(막8:36) 라는 성경말씀도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찬밥연대 2009.02.22 22:34

저 자신부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늘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못난모습만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무니씨 2009.02.22 22:43

이글 캡쳐해두어다가 욕설이나 비방이 과한 분들께 댓글로 달아드려야겠습니다. ^^

인간혁명 2009.02.22 22:45

멋진 노짱님에 멋진 회원님들 파이팅!!!

목동 아지매 2009.02.22 23:02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님에 말씀 너무 많이 공감 합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보미니&성우 2009.02.22 23:03

노공님의뜻에 공감하며... 부끄럽습니다

라라부인 2009.02.22 23:12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늦게 들어와서 오늘의 엄청난 일을 뒤늦게 흥분하며 클릭하고 있습니다.이 시대에 노공이산님이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계시다는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그저 사랑합니다...이말뿐...

매그놀리아 2009.02.22 23:17

참많이 부끄럽습니다...
노짱님..
죄송합니다..
거듭나는 우리들이 될것입니다..

칸(khan) 2009.02.22 23:35

사랑합니다..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운노짱 2009.02.22 23:36

노짱님말씀에 공감합니다. 반성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함께하는세상 2009.02.22 23:38

생각이 다름과 틀림.....정책 비판과 무조건 적인 인신공격을 구분 못함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인정과 승복 문화의 정착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 지길 바라면서 노력해 볼랍니다.

아라치 2009.02.22 23:38

'인간은 빵만으론 살 수 없다'는 얘기가 있죠.
제게 빵만으로 살 수 없게 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님이십니다.

자주 글 올려주세요.

원더우먼 2009.02.22 23:41

저번 주 어떤날 꿈에... 노공이산님께서 제 꿈에 나타나서...
제게 일만원을 주시더라구요,,, ㅎㅎ... 꿈에 대통령님을 뵌건 첨이라서..
그래서리.. 로또복권을 엄청 샀어요... 1등 걸리면 조용히 잘 살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 제가 사는 곳에선 1등이 없더라구요,,,
아직 미확인이라 2등이라도 되었을려나...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넘 좋아서 장난이 치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ㅎㅎㅎ,,,,

꿈 얘긴 사실입니다...ㅎㅎㅎ

아타락시아 2009.02.22 23:41

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버팀목입니다
따뜻한 봄이오면 얼굴이나마 보고 싶습니다.....

카리마 2009.02.22 23:42

대통령님! 오늘은 두번씩이나...
늦은밤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사랑 2009.02.22 23:59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dorae 2009.02.23 00:07

안녕히 주무세요...대통령님

러브오브시베리아 2009.02.23 00:25

대통령님 너무너무 보고싶어요.
제가... 아니 저희들이 왜 보고싶어 하는지는 더 잘 아시리라 믿으며,

휘돌고 꺾여도 물줄기는 결국 바다로 향할수밖에 없다시던 그 말씀
항상 잊지않고 있습니다.

영부인님과 대통령님 언제든지 항상 강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지금 이나라에 망나니같은 광풍이 휘돌아치고 있지만
기어코 봄은 오고야 말 것임을 확신하며 멀리 제주에서 댓글인사 올립니다.

조은 샘 2009.02.23 00:27

앞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달고 다른 분들의 댓글을 읽다가 보니 또 다른 글이 있어 반가운 마음이 두배가 넘습니다.

대통령님의 제안에 동감을 하면서 바람직한 게시판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두서 없는 글을 올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진 2009.02.23 00:28

^^..
우왕..~~~
안녕하세요..
오늘 댓글러에 충실 허다보니..
이런 영광도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그저 간절히 기원합니다..
.....()

사랑합니데이..~~~
무진장..
엄청스리..

오직 한분뿐인 내마음에 대통령님..
제가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곳을 찾는 이유입니다..

.....꾸벅.....

산바다강 2009.02.23 00:30

좋은밤 편안한밤 되세요.....

mcsolong 2009.02.23 00:30

글은 자주 올리지 못하고 주로
댓글만, 그것도 간혹 다는 주제 입니다만
댓글이라도 대통령님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옆에 계셔주셔서 행복합니다.

大부산상고 2009.02.23 00:49

인터넷 메인의 글을 보고 바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대통령님의 글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대륜 2009.02.23 01:28

대통령님의 말씀에 반성 또 반성합니다.

토론에 대한 멋진 말씀을 새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내외분의 건안하심을 빕니다.^*^

시대유감!!! 2009.02.23 01:30

말씀에 너무도 동감합니다

여기 홈페이지 토론 분위기는 정말이지....

허리가 않좋으시다구하시는데.. 아프지 마세요..

"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

파란노을 2009.02.23 01:56

참여게시판을 떠났던 마음!

모니터링 동호회를 떠났던 마음!

한 번 내친 걸음에 참 멀리까지 왔는데...

이제 좀 자유스러워졌는데...

에혀! 그 주름에 맺힌 넉넉한 미소가

제 푸른 개량 한복 바지를 바투 잡네요!!

이것을 기회로 조금은 자랑스런 게시판을 향하여

나침반이 움직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조심스럽게 저도 발길을 돌려봅니다.

아직은 마음만입니다.

몸은 아직은 초병으로 남으려고 합니다.

24시간 뚝을 선대도 아직은 여기가 편합니다.

찬바람 불고, 별이 쏟아지는 이곳이 좋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보다 한 줄 댓글이 더 무섭고,

승냥이보다는 파블로프가 더 무서우니 말입니다.

그래도 조용한 묵시가 고맙습니다.

제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자랑스럽니다.

고요한 외침이란 것

가끔식 소리쳐주시기를 바랍니다.

Pilsungholee 2009.02.23 02:06

한마디 한마디, 구구절절. 글쓴이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짱나라 2009.02.23 02:14

일상적으로 떠오르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판단과 행동에 도움이 되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사실과 논리들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의견만이 아니라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붙여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주권시민이 되는 학습이 있다면 아마 첫 관문이 이것일 것입니다.....

절대 공감합니다. 토론의 기본자세임에도 쉽잖은 일이기도 합니다.
공부도 그만큼 해야하고 글에 대한 책임감과 정성을 기울여야 할테니까요.
그저 게으르고 부족하다는 생각만 들어서 부끄럽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박영길 2009.02.23 02:39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유일 것입니다. 야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실도 논리도 없는 모욕적인 욕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이트에서는 특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도 감정을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한 논리로 대응하거나 그렇게 할 수준이 아니면 무대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의장 이번엔 이루어졌음 합니다
재임시절 공과실의 소통의 장을 위해서 함께참여 하겠습니다

염화시중 2009.02.23 06:22

참 감격스럽습니다.
님께선 이 게시판을 늘 감시(?)하시고 계셨네요.

"언제까지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고 계시려나!" 杞憂였습니다.
님께선 적절한 때를 기다리셨지요?
가야할 바를 깨쳐주시고, 교통정리해 주시리라 의심치 않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들 모자라는 생각의 깊이, 메워주시고,
울퉁불퉁 모난 심성, 둥글둥글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제가 있도록 해주신 친정어머니께와 동일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건강 살피시기를 당부드리오며

반딧불빛 2009.02.23 07:32

안녕하세요,노무현대통령님.....대통령님의 말씀이나 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사람의 향기와 숨결을 느끼는 사람입니다^^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지금보다 한차원 높은 눈을 뜨고 배움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관심과 애정을 빌어주세요,노무현대통령님 늘 건강하십시요^^ 우리 역시 지금보다 개명되고 균형잡힌 유권자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주위를 좀더 환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과풍경 2009.02.23 07:59

넵~!..... 철푸덕 *^_____^* .....(2)

보미니&성우 2009.02.23 08:51

그냥 기분이 좋군요.. ㅎㅎ

터진후라이 2009.02.23 08:58

사는일도 힘겹고..세상사를 읽는 능력도 미숙하고..
그래서..누군가..바람직한 타이틀을 가져오면..
그 밑에 장황잡설의 마음을 표현 하는 것..
이것밖에는 할줄 아는게 없고.
그보다 더 담대한 행동으로..어떤 화두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는것엔 여전히 부끄럽고..역부족인 달란트를 가져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추기경님관련..타이틀이
그나마 보존 되고 있는 모양새가.
진부하기는 하나..진일보 한 자정작용의 현상이다..
이렇게 아쉬운 위로를 삼아야 하는 형편인게 또
이곳 분위기의 현주소인듯도 하고요.

현 위정자에게 과유불급으로..모욕을 주는 발언들은
오히려..노공이산님을 더욱 힘겹게 하는 역풍으로 작용 할수도 있겠다..싶어
이 부분의 자정수위에도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저와 같은 미숙한 존재들이 즐겁게 동화 될수 있는.
깃발을 들고 가 주는 큰 사람들이..많이 아쉬운 기류가 느껴져서
아쉬움만땅인것도..인정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난솔잎 2009.02.23 09:40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넘어서는 자유를 용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와 비판일수록 공격이 아니라 상대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차분하고 겸손한 설득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겨 넣겠습니다!

불암 2009.02.23 09:54

오랜만에 글로나마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언제나 늘 바른 눈과 바른 입을 강조하시는 우리 노공님!
자주 뵈었으면 합니다.

동마루부동산 2009.02.23 10:08

반갑습니다. 월요일 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당신이 계셔서 늘 감사합니다.^^*

희망한아름 2009.02.23 10:09

글 속에 제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노력해야겠습니다.

사람사는세상2 2009.02.23 10:10

앞으로 사이트에 자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데이...

유다서 2009.02.23 10:16

관리란 참 얼어버 왜냐고요 입 맛이 천차가 만별이니께?hhh,kk. o

kongju 2009.02.23 10:17

사랑합니다 *^----------^*
그리고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려요~~~

노짱폴리스 2009.02.23 10:42

빨리 들어오려고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그트머리에 서 있네요...
노짱님께서 여기까지도 보실까...

이렇게라도 글을 올려 주시니..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어서 빨리 나오시길...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레볼루션**21** 2009.02.23 10:43

건강 하세요...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사랑합니다..

좌파 2009.02.23 10:47

허~~걱!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山形 2009.02.23 11:10

노짱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항상 강건하십시요.^^

BABO철이 2009.02.23 11:24

뒤늦게나마 댓글 올립니다..감사합니다..그동안 제가 미숙했던점
노짱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다행이 고치게 됬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우리에 힘이 되주십시요...

최두치 2009.02.23 11:27

수고하십니다..매일 눈팅만 하다가 ㅜㅜ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10번 째 방문하겠습니다.. 요새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김해 동상동에서 ~

만허공 2009.02.23 11:37

님이 자랑스럽습니다.사랑합니다.존경합니다.

인드라망 2009.02.23 12:15

노공이산님이 얼굴을 빼꼼 내미시는 걸 보니...
아~~ 이젠 봄이 왔나보다.. 아~ 따뜻해라... ^^*

검프 2009.02.23 12:24

하루에 두번씩이나 글을..
많으면 많을수록 반갑습니다..

아무튼 글을 통해서나마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서사람 2009.02.23 12:48

어제 이어 오늘 행운의 연속이네요.
님이 따뜻해서 봄이 빨리 달려올것 같네요.
빨리 뵙기를 손꼽아봅니다^^*

동쪽벗 2009.02.23 13:02

사료 깊은 말씀 듣고, 역시, 멋진 분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덧글을 달고 싶었는데, 과연 이 싸이트에다가 덧글을 달았다가 혹시, 누군가가 찾아와 네가 어떤 싸이트에 이런 글을 올렸지하고 붙잡혀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 덧글 다는 것도 주저 하게 됩니다..... 죄는 힘있는 사람이 만들고 싶을 경우 얼마든지 만들수 있잖습니까..... 후대에 진실은 밝혀지지만요..... 하지만, 그만큼 죄없는 사람들의 희생이 따른 다는 점이 가슴아픕니다..... 요즘 들리는 말이,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글을 올리면 몇분 뒤 삭제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 입니다..... 저도 일방적 비난은 싫습니다.....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올바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 다수와 틀리다고 무조건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모두의 마음을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글 길려 올려 죄송합니다.....

가행수 2009.02.23 13:12

저 역시 좀 찔리는게 많습니다.. 정권에 대한 불만을 논리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많이 써 온 듯합니다.. 이렇게라도 대통령님을 자주 좀 뵈었으면 좋겟어요..

훈사마 2009.02.23 13:13

쉽지않았을 것같네요 노짱이 이런글 올린다는게 ...
말씀대로 어렵더군요 이론과 놀리로 글올리고 그리고 자료찾아서 올리고...
저는 아직멀었나 라는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헌데 이젠 저도 자료찾고 한번 미쳐 볼랍니다 휴일에 시간 쪼개서 한번 찾아보구 나름의 이론을 정리해볼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 비판하는것은 어쨌던 자제가 되었으면 하는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투명한나라 2009.02.23 13:34

맞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확인되지않은 내용을 사실인것처럼 앞서가고,또 그것에 민감하여 얽히고 하는것이 안타까웠는데 대통령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는군요.
아뭏튼 이시대를사는 우리는 대단하신분을 만났다는것에 항상 감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배우고 깨우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따뜻한봄날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이젠 밖으로 나오셔서 웃을일이 많지않은 민초들에게 함박웃음을 안겨주시는 모습을 뵙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디 강녕하십시오. 꾸벅.

늙은이 2009.02.23 13:39

대한민국은 지금 한참 망가져 가고 있읍니다
노공이산 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침묵 하시는건
국민을 외면한 이기적인 직무유기 이고 진짜 탄핵감 입니다

2009.02.23 13:53

요사이 우울한 얘기들만 나돌아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던것 아닐까요? :-) 날도 따뜻해 졌으니.. 좋은 소식들도 하나씩 생겨나리라는 꿈을 꿔봅니다.

노랑경 2009.02.23 14:00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견디셔 2009.02.23 14:06

맞~씨미다, 맞꼬요~~
역시 항상 한벌 앞서가시는군열~~

고물버스 2009.02.23 14:10

대통령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사람사는세상을에 매번들어와보면 때때로 숨막힌다고할까요? 너무 경직된것같은 느낌이들때가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홈피기는하지만 다양성이 없는것같아 안타갑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또한 사람사는세상의 방식이라면 따라야하겠지요?!. 새롭게변화하는 홈피에서는 좀더 다양한 콘텐즈가 정립되길 희망합니다!..대통령님! 힘내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sull aria 2009.02.23 14:14

감정이 앞서 ,, <노빠로써 품위>를 내던진 적은 없었는지,, 반성해 보는 시간 이었습니다.. 항상 말과 행동을 경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격 해질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즈음인 만큼 ,, 때때로 일러 주십시요.. 걱정을 듣는데도 마냥 기쁘고 든든합니다.. ^^*

korea 2009.02.23 14:25

그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사람사는세상의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적극 환영합니다.

권보경 2009.02.23 15:29

요즘 정말 계속 쌓이는 울분이 참지 못해 이성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첨에는 비판이 그담엔 그들의 후안무치에 대한 분노가 점점 예전의 노공님의 때와 너무나 달라 점점 인격이 사라지게 되더군요...그래도 노공님의 글을 읽으며 다시 정리 해야겠습니다. 누군가를 욕한다면 점점 나빠지는것은 스스로의 인격일 뿐이겠죠... 노공님의 건강을 언제나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

~르트 2009.02.23 15:48

반대쪽 사람들의 수준이 10분의 1만 되어도 훨씬 재미있고 품위있을텐데...
늘 ROM이지만, 대단히 아쉽습니다. TT
사랑합니다, 노짱! ^ ^

슈퍼맨**3** 2009.02.23 15:59

대통령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생각하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실천은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 오죽하면 그랫을까 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동안 당했던 맘에~~~(조중동등의 신문기사 및 댓글에)

그렇습니다. 까닭은 그것 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베푼대로 거둔다고.....
그동안 저 비판받는 수구들이 노대통령님과 우리들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아마도 대통령님께서 걱정하시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 됩니다.
이상은 그렇지만 현실의 주먹은 내 앞에 있네요~~

노짱님 건강하시고요 봄에는 뵙기를 고대합니다. 빨리유~~
의롭고 자애롭다고 해서 사후에 이름이 붙은 의자왕의 비애가 서린
충남 부여에서~~~

종회아빠 2009.02.23 16:06

사랑합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빛송이 2009.02.23 16:11

오...민주주의 주권시민이 되는 첫 관문!!! 명심하겠습니다.

Free 나눔 2009.02.23 16:14

제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노무현이란 사람을 알게되어서요...*^^*

꿈의대화 2009.02.23 16:18

꼭 바로 앞에 앉아서 강의 듣는 기분듭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두번 강의해주시니 저희들도 기분 좋습니다. 차차로 좋아질거고 혹시 반대로 간다면 그것또한 의미가 커다고 해석 할수 있겠지요...늘 건강하시고 웃는 얼굴로 바깥나들이 나오시길 기대합니다.

현재와미래 2009.02.23 16:23

비판이 비판에 그치지 않고 여론이 되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왔었습니다. 본인은 물론 비판받는

입장에서도 제3자의 입장에서도 납득할만한 이유가 제시되면
더욱 좋겠지요.

큐싸인 2009.02.23 16:28

존경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가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급백수 2009.02.23 16:31

어제는 "검사들과의 대화"를 인터넷다시보기로 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되더군요.

그때 혈기넘치던 검사님들도 그때 말한소신을 잊지않고
지금도 잘 근무하고있을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를 보면 조금은 답답한 맘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내일은 또 해가뜨니까요.

벌써 봄이 올려나 봅니다.

건강하게 저희곁에 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산하 2009.02.23 16:42

이런저런일상에 마음이바빠서 오랜만에들어왔더니 노공이산님의글을접하게되네요 가슴이마구마구뛥니다 얼마나반가운지요 늘 건강하셔야뛥니다 그리고올려주신글 반성하고마음에새겨두겠습니다 이방에들어와서글을읽다가 안타까워했던일을노공님께서 정리해주셨네요 부끄럽습니다 노공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끼리코 2009.02.23 16:50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슈퍼맨3 2009.02.23 16:51

댓글을 올려놓고 보니~~~(대통령님 흉내좀 냈습니다 용서를~)

물론 노대통령님과는 전혀 관계도 유사점도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명박대통령과 관계된것인지도 모릅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망국의 모든 원한을 한몸에 받고 역사의 오점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된 왕
그러나 실제는 .....
앞에 말했듯이 의롭고 자애롭다하여 의자왕입니다.
삼천궁녀는 허구입니다. 현대에 와서 대중가요에 의해 날조된 구전이며
망한 나라의 모든 잘못된 책임을 후대에 뒤집어 씌운것이지요
물론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 아마도
신라에서 그렇게 삼국유사들에 나쁘게 기록을 하엿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야 승리자의 명분이 있으니 그래서 그런지
망한 나라의 모든 기록과 문화재는 다 불타고 없습니다.
고대 일본의 황실과도 연관된 백제의 왕~~
물론 말기에 일부 실정도 있었겠지요~성충 등의 고언을 듣지 않는
그러나 계백이 중명하듯이 끝까지 신임을 잃지 않는 왕입니다.
의자왕과 그의 백성들이 당나라로 끌려갈때 백성들이 백마강에나와 울던
유왕산이 아직도 있고 아직도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말을 하는것은
아닌것은 아니다라고 해야지 대응도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들 까지도 다들 그렇게
믿는 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세의 몽매한 나이드신 분들은 그저 죽어도 한나라당, 박근혜, 이명박통이 다 해주실거야~ 이러는 분들이기에~~`조중동의 세뇌~~
아니면 발악을 해서라도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anyway the wind blows~

거봉포도 2009.02.23 16:52

감사 합니다
사랑 합니다
고맙 습니다

옵저버 2009.02.23 17:16

노력하겠습니다 . 사랑합니다

돈나무 2009.02.23 17:30

^^

월향 2009.02.23 17:31

역시 격이 다르네요. 나라의 큰 어른이라면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세요~

촌놈밥상 2009.02.23 17:57

강물은 굽이쳐 흐지지만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교과서 2009.02.23 18:33

또 한번 되돌아 보는군요

호박별 2009.02.23 18:45

아...민주주의 주권의 시작.
이 글을 보니 노무현 대통령님과 대통령님 재임시절이 더 더욱 그리워지는군요.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법.
앞으로 이 곳에서만큼은 건강한 발언과 비판이 이여져 민주주의 발전에 작은 단초라도 뿌리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가 저처럼 힘없는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주지 않으니 참 살기 힘들지만 이곳에서 만큼은 작은 위로와 용기를 얻고 갑니다.
우리 모두 홧팅! 아자!
노공이산님! 건강하세요!

chandler 2009.02.23 18:48

대통령의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보면 유권자의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납니다. 님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인격은 현재 높은 곳엔 아무도 없습니다. 강하게 하셨어야 했습니다. 찌라시 언론들 폐간하고, 사기꾼 잡아 들이고, 검사들에게는 명령하셨어야 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벅수 2009.02.23 18:54

소중한 말씀 깊이 새깁니다. 그러나 이명박 욕을 하는건 "아무 이유없이"가 아닙니다. 그는 욕을 먹어도 쌀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고, 우린 그런 추악한 행태를 욕하는겁니다.

신토 2009.02.23 18:55

대통령님의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대통령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유쾌하고 좋아야 하는데 오늘은 조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민주주의2.0은 가입하고 싶어도 제가 가입을 못합니다.. 외국에 있으면 핸드폰 인증이 어렵습니다.
외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폐쇄적인 느낌을 받기도 하며.. 글의 내용도 조금은 경직되어 있는듯 합니다...
사회가 어렵고 어지러우니. 다들 신경이 날카로울꺼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 유쾌한 방제가 있는 방을 개설하는것도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십시요..

니리 2009.02.23 18:58

길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데릭 2009.02.23 19:01

그간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
건강하시기만 바랍니다

피낸스 2009.02.23 19:56

이명박을 좋아하던 비판하던 그건 내 자유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체적인 이름을 적시하며 비판을 반대하는 것은 옳은 것인지요.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리는 국민에게 있습습니다. 당신에게 실망을 느끼며 이제는 떠나려 합니다. 기회주의자 같은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miracle9212 2009.02.23 20:05

항상 곁눈질만하는 눈팅족인 저까지 결국 로그인 하게 하시네요 ㅠㅠㅠ 저희같은 우매한 국민들은 첫째도 둘째도 ..... 백만 스물한번째도 대통령님의 건강이 제일로 소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부처님께 빕니다....대통령님!! 이렇게 저의들의 속마음을 알아내시고 글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그리고 사랑합니다....

ufo 2009.02.23 20:18

노무현님...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세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번 했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뮤리엘 2009.02.23 20:20

역시 문장 하나하나가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노대통령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른소나무@ 2009.02.23 21:24

대통령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늘 대통령께서는 길을 가르쳐주시네요....

살고싶은도시 2009.02.23 21:49

글을 읽으며 많은 교훈이 남는것 같습니다. 머리속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반대와 비판" 사물을 명료하고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이고, "반대와 비판일수록 공격이 아니라 상대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차분하고 겸손한 설득" 마음속에 세겨두고갑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진영지기 2009.02.23 21:53

봄이 되면 나오실꺼죠 ??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봄은 언젠간 오니까요 .

당신이 봄입니다.....

anna88 2009.02.23 22:34

네.. 잘 알겠습니다..노짱님.. ^^*

희망전차 2009.02.23 22:59

국민은 국가의 주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대명제위에 탄생된 국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MB는 처음부터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않았으며 그럴 추호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선적이고 오만방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나홀로 독재정치를 행사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려는 최소한의 겸손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국민으로부터 상응하는 어떠한 응징과 도전을 달게 감수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지키지 않고 그영역을 벗어난 극단으로 치달은 결과입니다.
자연히 분노의 표출로서 퍼붓는 모든 인신모독성 언사와 욕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무조건 복종하라는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런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으로서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존재할 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부정한것입니다.
정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한때의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라고 위임한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안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통치를 하라는 기회를 제공했을뿐입니다.
민주주의는 이상적이며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런 만큼 민주주의의 이상을 창조하고 구현하는것입니다.
대통령은 단순히 법치주의를 내세워서 민주주의를 말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최상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newstep 2009.02.23 23:25

대통령님...잘 읽었습니다.
우리들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야함을 새삼 강조하신듯 합니다..
저희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신것처럼 저희들 또한 너무 죄송한 맘
금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무조건적이고 반사적인 대응을 자제 하겠습니다. 좀더 이성적이고 냉철하게그들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더 멋지고 자유롭고 유익한 사사세가 되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독려 해주러 가끔 글이라도 남겨주심에...
기쁘기가 그지 없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성사랑 2009.02.23 23:46

무조건 말씀에 따르겠습니다.그러니 많이 가르쳐 주십시요.
존경합니다.

비전**2033** 2009.02.24 00:00

아직도 당신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같이 살아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비단장시 2009.02.24 00:09

떠나버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
차마 발길이 안떨어져버립니다 ...

웃는돌 2009.02.24 00:41

노짱님말씀에 공감합니다. 자주 글 올려주세요.

김치복음밥 2009.02.24 01:56

공감하는 말씀..또 공감합니다..
간절하신 염려의 말씀..
간절하신 바램..
간절하신 당부의 말씀..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끔..한번씩이라도 좋은말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지역균형발전 2009.02.24 02:54

너무나도 가슴에 와 닿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성현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되어 너무나도 흐뭇하고 좋습니다.
현직 대통령 보다 더 관심과 존경을 받고 계시는듯 하여 좋습니다.
계속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황석산 2009.02.24 05:41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여론주도의 장으로 발전했어면 좋겠습니다.

질주조운 2009.02.24 10:18

앞으로도 공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세상사랑 2009.02.24 11:35

건강하십시오 ^^ 그리구 우리들 모두가 노력해요 ^^ 화이팅 !

빨강머리앤 2009.02.24 13:28

서민들이 살기에 정말 팍팍한 정권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물가때문에 힘들어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술술 나옵니다.. ㅠㅠ

욕설은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께서
받은 비난과 욕설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대로 야유와 욕설은 피하겠습니다.
생각있는 비판과 대안있는 반대 실천하겠습니다. ^^

하얀종이 2009.02.24 13:59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아빠 2009.02.24 14:05

오로지 추천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부하신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r길벗 2009.02.24 14:19

북극성은 언제나 제자리지만 뭇별들이 주위를 맴돌고있듯이
대통령님은 언제나 우릴 환하게 비추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빛이 온누리에 퍼져가도록 우리 회원님들이
최소한 누가되지않길바랄뿐입니다.
저역시 그늘이 되지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하늘우러러 2009.02.24 14:38

"민주주의 주권시민이 되는 학습" "공을 들여야 합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jsals 2009.02.24 15:01

상대방을 이기려는 마음 없애고 철저한 논리와 사실로 상대의 겸손한 동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동반한 글을 올릴 수 있게끔 역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토산참외 2009.02.24 15:56

감사합니다.글고 사랑합니다.영원히 행복하세요

이름없는진실의왕 2009.02.24 17:02

그 동안 폴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를 읽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경제면 에서도 진실을 가려내는 눈을 가지고 돌아오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것이니까요. 진실이 무엇인지 가까이 찾아갈수 있다는것.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토론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상대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 새겨듣겠습니다.

진오공이 2009.02.24 18:03

오랜만에 왔는데 앞으로 자주 들러야 겠어요
너무도 따스한 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노짱 화이팅

낭만식객 2009.02.24 18:53

대통령님 뵙고싶습니다..

단구 2009.02.24 19:08

역시 격이 다르다는 댓글에 깊은 공감을 표 합니다.
말씀 새겨서 듣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님!!!

솔가실 2009.02.24 19:57

역시 한말씀하실줄알았습니다.동감입니다.비방,욕설보고싶지않았습니다.말씀해주셔서감사합니다.

한파랑 2009.02.24 19:59

대한민국에 진정한 대통령이 계신다면,,그건 당신 한분이십니다!!

푸를른솔아 2009.02.24 21:05

영원한 대통령 노짱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_()_

포나나 2009.02.24 23:22

사랑합니다~~존경합니다~~^^*

쉼과자유 2009.02.24 23:44

영혼의 울림이 있는 말씀..새겨 듣겠습니다. 저에게도 미움과 원망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명박을 통해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람 공부요, 그에게는 진심을 다하는 논리적인 비판을 하여 그의 공부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보다 더한...)합니다.

aeinta 2009.02.24 23:46

당신과 동시대에 같이 숨쉬는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행복하답니다.

별나라**93** 2009.02.25 14:33

현대통령과 정권을을 어느선까지 인정해야하나요? 아님 선 자체가 없는건 아닌가요? 합법의 탈을 쓴 자들의 소행을 언제까지 성인군자의 모습으로 봐야만 하나요? 감정과 이성이 교차하는 씁쓸한 마음뿐입니다.. 답답합니다...

광개토왕 2009.02.25 17:24

사랑합니다....노前대통령님...건강 하십시요..

후파 2009.02.25 20:21

노무현 대통령님! 우연히 마주쳤는데 큰절드리는 머리희끗한 사람이 접니다. 꼭, 큰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후파올림.

도톨 2009.02.25 22:52

노무현 대통령님^^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꾸벅~

一日一星 2009.02.26 02:27

글 잘 읽고 갑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한가닥.... 을 잡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봉하가는길**1** 2009.02.26 11:18

존경 합니다~~~언제 나와 주실련지요~~~

태형아빠 2009.02.26 11:25

힘내세요

근플래닝 2009.02.26 17:14

진실된 민주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 모두 차가운 가슴으로 노력합시다..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진실된 논리만으로 나의 생각을 논하는 훈련을 합니다..그래야 나의 생각으로 상대가 스스로 변합니다..이것이 우리의 참된 승리입니다..감사합니다..핫팅~

미네랄밥 2009.02.26 19:47

쥐명박에 의해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 전대통령님의 리더쉽을 보고 싶습니다.

상식원칙 2009.02.26 21:03

이명박을 욕하는 이유는 근거를 달고 싶지 않을정도로 이미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나오는 욕입니다.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노통처럼 이런 합리적인 사고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는 거지요. 한나라당 지지자와의 차이점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인데, 이명박을 욕하는 데 있어 합리적 근거를 달려고 해도 그 통치방식이 거짓되고 위선적이어서 이유를 달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가리 2009.02.26 22:16

넵 당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짱님 보고시퍼요~~~

재열이 2009.02.26 22:35

무언가 동질감을 느낀다는 것.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한 대상은 하나인데, 참으로 많은 견해들이 난무한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욕설과 비방은 저도 반대입니다.
능동적이지 못해서 아니, 관심이 없어서 그런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듯 아쉬워 해야만 하는지가 문제이겠지요.
의견이 다르다고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답답한건 사실이네요.
명쾌한 답은 어디에도 없는 듯합니다.
그냥 저도 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여러 명석한 분들의 사설도 보면서
나의 지인들과 토론하고 싶네요.
아무튼, 조만간 찾아뵙고 멀리서나마 한번더 뵙고 싶습니다.

노통짱**!** 2009.02.27 05:31

감사합니다! 노짱님 ^0^

jabsu 2009.02.27 21:37

역시 큰어른께서 하시는 말씀!
지난주에 창원 출장중에 땡땡이 치고 혹시나 하는 맘에 뵈러 갔다가 아쉬움만 품고 서울로 왔읍니다. 늘 당신이 그립습니다.

봉화네 2009.02.28 00:10

염려를 끼쳐 죄송스럽습니다.

tmfgl8652 2009.02.28 06:32

조심조심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 사랑합니다

비우기 2009.03.01 15:29

이제나 저제나 했더랬는데,, 빼앗긴 봉화에도 봄날이 왔는지 궁금해서 왠지 들리고 싶더라니 오늘 쌍대박입니다. 두번이나 노공이 산님의 글을 뵈알하게 되다니,, 횡재한 기분입니다. 님을 대하면 진정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좀더 세련되고 논리적인 평론과 비평이 있는 세상이 꼭 올것만 같습니다. 보수찌라시들 생각하면 살맛 안나고 무시하기도 쉽지 않는데, 우리 모두가 좀더 의연 해지고 성숙해지면 정말 될 수 있겠죠?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전처럼 봉화 일기가 다시 시작되길 기다리며,,

사랑합니다노짱 2009.03.02 09:12

봄이 되면 다시 얼굴 비춰주실 꺼지요? 주말에 봉화마을로 가고 싶은데 ,,그리고 노통님 얼굴 뵈면 마음이 치유가 될 꺼 같아서요...그 날만 기다린답니다..노통님 그리고 권여사님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 앞으로는 늘 웃을 수 있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줌마 2009.03.02 16:08

제가 글을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있게 잘 쓰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이 사이트에 기여하고 싶은데, 눈팅하는 능력밖에 없네요. 안타깝고, 죄송하고...
사이트가 문을 연지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차차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

오아시스 2009.03.03 16:55

무슨 뜻인지 알거 같아 미안하고 죄송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짚어 주시니 내가 어떻게 했나 다시 되뇌어 봅니다.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하얀곰 2009.03.04 16:39

연짱으로 3편의 글을 읽었습니다.

웬 복입니까!!!!!!!
건강하십시오^^

선장 2009.03.04 22:32

흐~울애인^^* 건강하십시요.

노사사 2009.03.07 15:56

잘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요즘처럼 사회가 어수선하니 노무현대통령님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ㅋㅋ 다행인것은 저와 반대의견을 갖던 친구들이 노무현대통령님의 업적을 조금씩이나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세요...항상 진리는 승리하잖아요/

슬퍼요슬퍼 2009.05.24 17:40

이때만해도....
이렇게 되실줄을 모르셨겠지요..
편히계세요..이젠..
사랑합니다

안타꼴 2009.05.25 11:41

왜 당신은 가야 할 길이 아닌 길로 가셨습니까 왜 가서는 안되는 길로 그렇게 서둘러 떠나야 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당신이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일이였습니다.

눈물계속난다 2009.05.26 03:38

노대통령님...홈페이지를 더 꾸미셔야죠..어디를 가신건가요...
노대통령님이 없는 홈페이지는 안된단말이에요ㅠㅠㅠ

봉화댁입니다 2009.05.26 18:02

길이길이 보전하여 언제고 보고싶을땐 볼수 있도록 홈피만은 유지됐음 소원해봅니다.

4wnrdma 2009.05.26 21:08

왜 . 왜..
당신은 우리곁을 떠나셨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당신의 떠나감을 너무나도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왜 가셨습니까...
왜..
너무나도 슬픕니다...
부디 잘 계십시오.
살아생전 고생하셨던것 잊으시고, 웃으면서 계십시오..

고개숙인 하얀 국화한송이 2009.05.26 21:38

악해 지고 싶아도 악해질수 없는 그런 분인것 같습니다.
한자한자 아무리 새겨보아도 메아리 없는 공허함이 더 짓누르지만,
그래도 어디선가는 여기에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글을 읽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렵니다.

저를 비롯한 한국사람들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느껴왔지만, 계실때 소중함을 못느끼는...
이제는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시는,
그냥 흐뭇한 미소만을 지어보이시는 영정사진 앞에서
향하나 국화한송이 밖에 마음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민을 현자의 얼굴로, 그런 백성을 섬기는 진정한 국왕이셨습니다.
늦었지만, 수고많으셨습니다.
뒤늦게라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리석었음을 느끼게 해준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당신의 작은 소망하나 못들어준 후회스러움에 그냥 고개만 떨굽니다.
편히 잠드소서

럭포유 2009.05.27 11:47

이제 당신을 뵐 수 없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우리들 마음속 유일한 대통령으로 살아 숨 쉴 것입니다...지켜 드리지 못해 죄스럽습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씨앗키움 2009.05.28 00:08

아뿔사 다신 뒤에 깨닫는 후회

chs1007 2009.05.28 03:44

보고싶어요....

울보**a** 2009.05.28 05:45

보고싶습니다..

날개잃은물새 2009.05.28 16:09

우리네 어리석은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나치는 시간을 잡지도 못하면서 왜 주어진 시간동안 충분히 사랑하지도 못하고 떠나신 후에야 비로소 후회하며 가슴을쳐야 하는걸까요? 노짱님이 안계신 5월의 하늘은 유난히도 화창하고 눈부셔 가슴이 메어집니다.

마녀사냥**12** 2009.05.30 21:25

이글을 이명박이 봐야하는데...
정말 이렇게 관용적인 분이 계실까요.. 객관적인 분이 계실까요..
정말 정말 이 세상에 또 '노무현'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버섯소녀 2009.05.30 21:26

네. 알겠습니다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cellook 2009.05.31 20:56

참으로 좋은분을 잃었어요. 알면알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오 그나마 위안을 삼습니다. 끄 뜻을 잊지 않고 길이 길이 이어가도록 할께요. 사랑합니다.

팥쥐**76** 2009.06.01 20:21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싶습니다.....

돌체비타 2009.06.03 01:26

울고싶습니다..

하얀비둘기 2009.06.04 20:49

이렇게 멋진분을.....
이렇게 국민과의 소통을 국민을 위하던
대통령님!
지금 계시지않습니다.
희망을 잃고 좌절이됩니다..
그러나,,,,
제2의 노무현은 곧 탄생할것입니다.

왈순아지메 2009.06.05 18:05

대통령님이 우리가까이에 계신다는게 놀랍고 행복했습니다

언제 또 이런대통령을 볼수있을까요..

가을여자 2009.07.07 14:07

세상에 태어나..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후회하며..~살아보긴 처음입니다..

이유는요..~~올..가을날..높고 푸른 하늘아래서..
봉하마을행..계획이..산산이 무너진 슬픔이요..

봉하는 언제든 갈수있지만..~~당신이 안계시니..~~
왜..진즉..모든일 다..재켜두고 달려가서 손한번 만이라도..~
아니요..인사라도..한번..~~따뜻하신 미소한번..~~

직접 볼수없었는지..~~평생..후회합니다..
대통령님..영정앞에..~뵈었으나..후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찌합니까..눈물로라도..`억지로라도..~~

떠나신 님..을 보내드려야 하는..49제가..다가오네요..
하늘도 땅도..~서럽게시리..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도 우리님..떠나시는날..온나라 국민이 거의 다..~~

대통령님 잘가시요..배웅하고 싶어 봉하에 모일건데..~
하늘님..그날만은 햇님이 쨍하고~~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부터 내리는 비..미리 다..내리고서..~
우리님..가시는길..~햇님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옳은일엔용기를 2009.07.20 13:05

이제야 이글을 보니...후회가 막심합니다...좀더 마음가는데로 행동을 빨리 했으면 대통령님 계셨을때 공유할수 있었을텐데...못난 내자신...

책노트 2009.08.21 03:57

이제서야..이 글들을 봅니다...노무현대통령님의 글 속에..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곳곳에 숨어있음을 발견할때마다..가슴이 사무쳐옵니다..민주주의 주권시민이 되는 학습..^^ 아 우리 노짱님 보고싶다..^^

훈초 2010.09.19 22:04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살아 생전 열심히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넘 큽니다.
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 속 대통령님~

프린세스 밥 2010.09.26 15:01

아...너무나 그립습니다 ㅠㅠ

바람영화처럼 2010.10.15 23:10

이제야 봅니다... 님!...너무 보고싶습니다...

용이엄마 2010.10.23 23:57

너무보고싶고 영원히사랑할겁니다 노무현대통령님

e노랑꽃 2010.12.28 15:40

"대통령님, 만수무강 하소서."
꼭 2009. 5. 23일 이전에 드리고 싶었던 간절한 말씀이었습니다.
헌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너무 슬픕니다.
이곳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틈에 여기서 서성이는 저를 봅니다.

현하조모 2010.12.31 20:52

가슴 저리게 그립습니다
너무 보고파서 서럽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생생한 님이 보고싶읍니다

떡쟁반 2011.01.08 13:12

이곳에 들어와 대통령님의 모습과 음성 어록 등을 살펴보는게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무척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조중동은 이윤을 추구하는 악덕 장삿꾼임을 늦게나마 알았고 그들의 사악함을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무우 2011.05.17 17:30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우리대통령님 여기 이곳에 살아계신거라 믿습니다 우리대통령님 너무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눈물이 또 납니다 우리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상생의계절 2011.06.30 23:09

성지 순례 합니다 ㅠㅠ

마초맨 2011.11.04 23:26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흔살인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이 아니라 사제지간 이었으면하는...
그러면 자주 막걸리 가지고 자주 찾아뵐텐데.... 하는.....
늦은밤 많이 뵙고 싶어 들렸습니다.
부디 계신곳에서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촌평쓰기 등록

목록

NO	제목	조회	글쓴이	등록일
현재글	글을 올려놓고 보니 (237)	61593	노무현	2009.02.22
17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58)	67552	노무현	2009.02.22
16	한국정치학회와의 대담 (45)	32566	운영자	2008.10.16
15	대북정책,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53)	30592	노무현	2008.10.02
14	회원 게시판은 30,000번째 글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304)	124591	노무현	2008.03.27
13	생활의 작은 기쁨 (185)	128078	노무현	2008.03.09
12	봉하마을 참 맛을 보고 가세요. (252)	148182	노무현	2008.03.06
11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119)	124446	노무현	2008.02.29
10	안녕하십니까-봉하에서 띄우는 두 번째 편지 (311)	163015	노무현	2008.03.03
9	부산 개성고(부산상고) 총동문회 (61)	60251	운영자	2008.02.29
8	[연설] 노무현 대통령 귀향 인사말(봉하마을) (60)	31571	운영자	2008.02.26
7	[연설] 노무현 대통령 귀향 환영행사(밀양역) (30)	21640	운영자	2008.02.25
6	시민주권시대를 위하여 - 노무현의 민주주의론 (48)	60556	노무현	2008.02.20
5	대통령 한 사람 힘으로 역사발전하는 것 아니다 (11)	13964	운영자	2007.11.11
4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5)	6483	운영자	2007.10.18
3	정치·복지·언론 후진국 벗어나 성숙한 민주주의로 (4)	4707	운영자	2007.06.08
2	시민주권사회 위한 참여운동 펼치자 (7)	7097	운영자	2007.06.02
1	국방·외교·안보·통일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20)	27257	운영자	2006.12.21

1 | 2

우 (121-89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2층 | 전화 1688-0523 | 팩스 02-713-1219 | 이사장 이병완 | 사업자번호 105-82-17699
COPYRIGHT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ALL RIGHTS RESERVED.
| 이메일 knowhow@knowhow.or.kr
노무현재단 찾아오시는 길

우 (621-803)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3 | 전화 055-344-1004 | 팩스 055-344-1007 | 이사장 권양숙 | 사업자번호 615-82-09681
COPYRIGHT © 재단법인 아름다운봉하 ALL RIGHTS RESERVED.
봉하재단 찾아오시는 길

문의전화 회원·홈페이지·저작권 1688-0523 / 해외전용(직통) 070-7931-0535 / 묘역·생가·자원봉사 055-344-1302 / 봉하장터 1599-1946 / 생가쉼터 055-344-1005